

포덕 161년 천일기념

포덕 161(2020)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61년

天 日 記 念



포덕 161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 제15장 천일기념가	14
포덕문	16
수운 최제우 대신사 약력	20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명송

1. 경전봉독_ 포 덕 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1. 천덕송 합창_ 제15장 천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기 념 사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무극대도(無極大道) 천도교를 창명하신지 161년이 되는 천일기념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후학들은 포덕천하의 참된 역군이 되어 시천주(侍天主)의 진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지우성(誠之又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창명할 당시 우리나라는 유가(儒家)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규범이 황폐해진 사회로 전락한 나머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거기에다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국이 아편전쟁을 계기로 쇠락해가자 민중들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의식에 빠져 도참설(圖讖說)에 현혹되거나 승지(勝地)를 찾아 방황하는 등 현실도피에 급급하였습니다.

대신사께서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암울한 시대상황을 고질적인 사회 병폐로 판단하시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친 구도고행 끝에 무극대도를 득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명된 동학 천도교는 방황하는 민중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개벽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한울사람으로 격상하는 가치관의 혁명적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극대도의 창명은 첫째로 인간을 차별시하던 선천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종언의 선포였습니다. 대신사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신(神)과 인간에 대한 관념화된 불평등을 타파하여 인간이 신의 종속물이 아닌 신인일체의 최령자(最靈者)로 격상시킴으로써 재래의 신화적 세계관에 일대 정신적 혁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천(人乃天) 정신이며 우리 도의 종지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세에도 고전적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천주는 분명히 미래사회의 가치관을 변혁시켜 새로운 인류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로 무극대도의 창명은 침략과 탐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도의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대신사께서는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는’ 서양사람들의 기만 행태를 지탄하면서, 인성(人性)을 파괴하는 아편을 강매하기 위해 아편전쟁까지 불사했던 서구 침략세력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학살한 일본인들을 ‘개같은 왜적놈’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것은 침략과 탐욕이 결코 도의사회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인류사회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각자위심(各自爲心)하는 불신과 분열의 사회를 진단하고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치유코자 했습니다. 시천주란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우주가 하나 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시천주입니다.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공동운명체라는 시천주정신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위하는 사회, 이것이 동귀일체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던가”라고 강조하시면서, 동귀일체는 흥성하는 길이요 각자위심은 쇠망하는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신사의 이러한 가르침은 각자위심에 물든 낡은 세력에 의해 이단(異端)으로 몰리는 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신사께서는 포덕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대구 장대에서 좌도난정(左道亂正)이라는 죄 아닌 죄로 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 후일 우리 역사는 당시 위정자의 그릇된 처사를 비판하면서 대신사의 신념과 순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는 득도 당시 한울님으로부터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는 천명(天命)을 듣게 됩니다.

대신사께서는 이 천명을 지키기 위해 순도하셨고, 해월 신사 역시 대신사의 명교를 천명(天命)으로 받아들여 일생동안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 끝내 순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의암성사 역시 일본에 망명하시면서까지 동학을 천도교로 현도시켜 3백만 대중단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성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우리 후학들은 스승님의 큰 뜻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승님의 영도력을 교훈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교단중흥’이라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한층 성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리가 금불비고불비(今不比古不比)하는 진리라 할지라도, 또한 천도교가 역사적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 불멸의 위업을 이

룩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덕하고 결집시킬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도교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인 스스로 스승님의 천명 수행정신을 본받아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암성사께서는 “우리 교의 인내천(人乃天) 진리는 5만년이 이르도록 하루와 같아야 하려니와 교단의 제도에 있어서는 시의(時宜)에 맞도록 십년(十年)에 소일변(小一變)하고, 백년(百年)에 중일변(中一變)하고, 천년(千年)에 대일변(大一變)하여 항상 새로운 면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는 ‘한번 입도식을 거행하는 것은 한울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一番致祭 永侍之重盟)’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도교에 입도한 우리들은 입도식 때 낭독한 서천문에서 맹세한 그대로 스승님의 가르침에 성

실히 따르도록 거듭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중흥의 첩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단을 중흥할 수 있는 역동성과 동학혼은 확고한 신념과 다짐에서 강철같이 강해진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천일기념을 거듭 경축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하여 천덕사은(天德師恩)에 보답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에 의하면 포덕 3년 북접에 풍습(風濕)이 크게 유행하자 대신사께서 영해(寧海)접주 박하선에게 ‘마음과 기운을 화하게 하여 봄같이 화하기를 기다리라(得難求難 實是非難 心和氣和 以待春和)’라는 글을 지어 보냈더니 풍습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덕 27년에 해월신사께서 악질(惡疾)이 크게 유

행할 것을 예견하시고 도인들에게 기도에 힘쓰면서 묵은
밥을 새밥에 섞지 말고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라는 등 특
별히 청결에 유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해 6월에 괴
질병이 크게 유행하였으나 오직 도인들은 무사하여 원근
에서 이 소문을 듣고 도에 드는 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동덕 모두가 스승님의 가
르침대로 수도에 힘쓰면서 특히 청결에 유의하시어 건강
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심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1(2020)년 4월 5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지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지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15장 천일기념가

1. 한 울님 의 높 으 신 - 목 소 리 로
 2. 한 울님 이 은 두 말 러 라 하 소 리 며
 3. 한 울님 이 이 우 리 스 승 만 분 우 리 서
 4. 한 울님 이 이 우 리 스 승 만 분 우 리 서
 5. 한 울님 이 이 우 리 스 승 만 분 우 리 서

1. 우 리 스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2. 우 리 스 스 -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3. 처 음 으 - 로 그 공 이 루 실 - 때
 4. 내 마 이 음 기 이 곧 네 맘 이 다 하 실 - 때
 5. 마 이 기 - 베풀 로 를 기 실 - 때

1. 구 질 구 질 오 - 는 비 는 개 었 고
 2. 맑 - 은 바 람 은 천 히 불 고
 3. 큰 - 밤 올 깨 - 처 우 는 닷 소 고
 4. 잔 - 나 비 부 르 짓 음 는 그 아 - 쳤 리 고
 5. 온 우 주 를 비 치 려 는 아 - 침 칩 - 해

1. 짐 은 구 림 은 사 라 졌 구 나
 2. 용 담 소 물 은 고 요 하 구 나
 3. 새 벽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4. 흥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5. 흥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후렴

거룩하신 스승 말씀에

사람이 곤한 울인 - 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 아 - 침

布德文 (포덕문)

蓋自上古以來 春秋迭代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①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②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이화로 알더니,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卷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而順天理者也 故 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 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③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나시어 일월성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적어내어 천도의 뉘뉘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부쳤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

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
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리오.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④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사람이 각자위심하여 천리를 순종
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
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功取天下 立其
堂 行其道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 ⑤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
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
耳中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
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 西道以教人
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
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⑥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틱해지고 몸이 떨어져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
 씬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
 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게
 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
 하지 말라.」문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대답
 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
 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
 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
 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
 病則 或有差不差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
 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⑦

나도 또한 그 말씀에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서 마셔
 본 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더
 니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르른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
 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

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虜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⑧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 德 甚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而 吾將慨歎 世則無奈 忘略記出 諭 以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 ⑨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사람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나의 이 말을 들으면 들어가서는 마음으로 그르게 여기고 나와서는 모여서 수군거리며 도덕을 순종치 아니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진 사람도 이를 듣고 그것이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 못내 개탄하거니와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간략하나마 적어내어 가르쳐 보이니 공경히 이 글을 받아 삼가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지이다.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